

나는 솔로? 나는 절로!...백양사에 활짝 핀 '청춘 웃음꽃'

'나는 절로, 백양사' 가보니

호남의 천년고찰 중 하나인 장성 백양사가 젊은 이들의 웃음소리로 들쭉였다.

30대 미혼 남녀의 결혼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색 '만남의 장'이 백양사에서 펼쳐졌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백양사의 공양간에는 처음 만난 24명의 30대 젊은 남녀가 화기에 애한 분위기에서 점심 공양(供養-절에서 음식을 먹는 일)을 하면서 1박 2일 간의 '나는 절로, 백양사'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하는 행사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모인 남녀의 짝을 찾아주는 것으로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자 조계종은 지난 2008년부터 '만남 템플스테이'를 운영해왔다. 올해 초 연애관련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조계종은 '나는 절로'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강원도 낙산사에서는 1501명의 30대 남녀가 지원하기도 했다. 백양사에서도 남녀 각 10명씩 선정하는 데 총 947명이 지원해 47.35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조계종은 남녀 각 2명씩 추가해 총 24명을 선정해 인연 맺어주기에 나섰다. 행사에 참석한 이

조계종,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만남 도모 광주·전남 첫 시리즈 전국서 947명 신청 경쟁률 47.35대 1...24명 1박2일 템플스테이 12쌍 중 7커플이나 탄생...내년 하동 쌍계사에서 새 시리즈 시작

들의 이름은 딱 두 개로 정했다. 장성이 흥길동의 고장이라는 점에서 남자는 길동, 여자는 길순.

이들은 본격적인 행사 시작을 앞두고 템플스테이 복장으로 갈아 입었다. 회색 조끼·보라색 바지 등 색으로 다른 어엿한 '커플룩'이다. 남자는 청실, 여자는 홍실 단추(짧은 염주)를 배부받은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참여한 만큼 자기소개 시간에는 사과 나이, 직업을 밝혔고 매력 어필을 위해 "사진을 잘 찍는다", "강남 자가보유",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등 본인의 장점을 어필하거나 "나는 절로"로 4행시를 선보이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경찰관 문길동(가명·37)씨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해 모인 사람들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높다"면서 "오늘 꼭 좋은 상대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 참여했다는 고길동(가명·35)씨는 "연애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지원하려다 '나는 절로'로 경로를 바꿨다"면서 "헬스, 러닝, 등산 등 활동적인 취미를 갖고 있는데, 가

치관이 잘 맞는 여성분과 함께 즐기고 싶다"며 지원 동기를 설명했다.

35살에 결혼하는 게 목표였다는 최길동(가명·35)씨는 막상 서른 다섯이 되자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에 참여하게 됐다. 최씨는 "기대만 설렘반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아왔는데, 돌아가는 길은 혼자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인천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임길순(여·가명·32)씨는 "요리와 베이킹을 좋아해서 회사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하는데, 이제는 직장 동료가 아닌 남자친구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싶다"며 "단풍이 아름다운 백양사에서 의미있는 만남을 갖고 돌아가고 싶다"고 희망했다.

1:1 치담 프로그램에서는 10분마다 상대를 바꿔가며 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치담에서 생긴 호감도를 바탕으로 넷플릭스 '세피의 테이블' 등에서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정관스님의 사찰음식 체험 시간에는 저녁공양 상대를 결정하는 1차 선택 시간을 가졌다.



장성 백양사에서 2일 열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나는 절로'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일대일 치담을 하고 있다.

여성 참가자가 남자 참가자 앞에 놓인 차재와 똑같은 차재를 들고 맞은편에 앉는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할 수 있다. 놓여진 차재로는 정관스님의 지시에 따라 '감 말랭이 고추장 무침', '표고버섯 조청조림' 등 저녁밥을 함께 만들었다. 저녁 식사 이후 이어지는 레크리에이션에서 야간자유데이트 상대를 결

정해 1:1 심야 데이트가 진행됐다. 이번 나는 절로 백양사에서는 낙산사보다 한 커플 더 많은 7커플(14명)이 탄생했다. 한편 올해 '나는 절로' 프로그램은 다음달 14일 총동창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고 내년에는 하동 쌍계사에서 시작한다. /장성=글 사진 김다민 기자 kdi@

상권 르네상스 효과...충장으로 상가 공실률 줄었다

중대형 상가 3분기 공실률 24.97%...동구 '임대료 인하 노력 성과'

상권 침체로 쇠락하던 '구도심' 광주시 동구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동구는 최근 충장으로 일대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100평) 초과 상가 중에서 건물 전체 실(室)수 대비 비어 있는 실의 비율을 뜻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충장·금남로 일원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4년 1분기 31.02%, 2분기

25.3%, 3분기 24.97%로 줄었다.

충장·금남로 일대는 최근 상권 침체와 맞물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지속 증가했다. 1분기를 기준으로 2021년 23.93%, 2022년 24.03%, 2023년 28.60%, 2024년 31.02% 등이었다.

침체 원인으로는 온라인 소비 문화가 강화되고 도심 공동화가 심화한 점 등이 꼽힌다.

동구는 충장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상인들의 임대료 인하 등 노력으로 상권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자평했다.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상점가 축제 '라온 페스타', 골목여행 프로그램, '충장의 집(ZIP)'·'K-POP 공유카페' 등 콘텐트 조성, 핵점포 및 마을백화점 조성 등을 시행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최근 점진적인 충장로의 신규 입점 증가 추세에 발맞춰 상권 내 빈 점포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실험을 기울이고 있다"며 "충장로가 옛 명성을 회복하도록 더욱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거동 불편 수능생 '119 이송 서비스' 이용하세요

13일까지 소방서에 전화예약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119 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119 이송 서비스'는 장애나 사고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화예약을 받아 시험 당일 119구급차로 집에서 시험장까지 수험생을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자택까지도 데려다 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험일 하루 전인 13일

까지 119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예약을 하면 된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또 시험장 내 응급환자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자로 구성된 구급대원을 모든 시험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최정식 광주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은 "모든 수험생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광주소방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수험생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안팎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산불예방' 무등산·지리산·월출산 일부 탐방로 통제

광주·전남 국립공원 123구간 내달 15일까지

광주·전남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된다.

3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 123개 구간(577km)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탐방로 통제가 이뤄진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무등산과 지리산, 월출산 일부 탐방로가 대상이다.

무등산은 총 3개 구간으로 인왕봉전망대-군부

대정문,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 선주암삼거리-서인봉갈림길 등이 포함된다.

지리산은 모두 26개 구간으로 노고단과 피아골 대피소 등이 해당한다. 월출산은 1개 구간으로 무위사-미왕재에 한해 통제된다.

통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다른 사람 '다자간 연애' 폭로·비방한 목사 명예훼손 벌금형

대법원이 동의없이 개인의 성적 지향을 타인에게 드러내고 비방한 목사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엄상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B씨의 얼굴과 실명이 나온 기사를 인

용하면서 B씨가 풀리아모리(다자간 연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는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피해자의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

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과 특정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게시했다"며 유죄가 맞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uwayapply.com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